

세계적인 캠퍼스로 성장하려면

# 국제학생이 바라본 KAIST

대담에 참여한 사람들 (성 기준 알파벳순)



**마이다 아이자즈**  
(Maida Aizaz)  
국적: 파키스탄  
전공: 전산학부  
학부 2학년



**나비하 호사인**  
(Nabiha Hossain)  
국적: 방글라데시  
전공: 바이오및뇌공학과  
학부 3학년 / 외국인학  
생연합회(KISA) 대표



**이시 리우**  
(Yisi Liu)  
국적: 중국  
전공: 지식서비스공학과  
석사 1학년



**제임스 필립스**  
(James Yosef Philips)  
국적: 미국  
전공: 신소재공학과  
석사 1학년



**사라웃 시라코싯**  
(Sarawut Siracosit)  
국적: 태국  
전공: 신소재공학과  
학부 4학년

글 | 김택원 동아에스앤씨 기자  
통역 |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사과정 오승원

KAIST는 한국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수많은 과학기술인재를 배출했다. 그 결과 2021년 THE(타임즈고등교육)에서 발표한 '세계신용대학순위'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는 등 괄목한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산학협력 부문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KAIST가 자신의 소임을 얼마나 훌륭하게 이뤄냈는지 보여준다. KAIST의 국제학생들의 눈에 비친 KAIST의 캠퍼스는 한국인 학생이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KAIST에서 국제 학생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5명의 국제학생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학업이 바쁜 중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출신지가 다른 만큼 KAIST를 선택한 이유도 다양할텐데요, 소개를 통해서 KAIST에 진학하신 이유를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리우>>**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교수님들도 학문적인 깊이가 깊고 학우들도 누구보다 열심히요. 무엇보다도 제가 미국 워싱턴 컬리지에서 학부생활을 했는데 중국인으로서는 비슷한 문화권이라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고향이 그리기도 했거든요.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문화권에 있으면서도 국제화된 곳이라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라코싯>>** 제게는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

큰 영향을 줬어요. 태국에서 왕립과학영재 학교(Kamnoetvidya Science Academy)에 다녔는데, 여기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와 교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학교 사이에 교환교사가 오가기도 하고 KAIST의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강연하시는 일도 많았지요. 덕분에 KAIST는 태국 학생들에게 꽤 친숙해서 가고 싶은 대학으로 손꼽히곤 합니다. 저는 아시아 문화권인데다 건설한 소재기업이 많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KAIST를 1순위로 선택했어요.

**필립스>>** 제게는 약간 불가피한 선택인 면도 있었어요. 학부 졸업 후 여러 문화권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에 왔는데 마침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죠. 그때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져서 이 기회를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국제적인 경험을 더 해볼 생각으로 KAIST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호사인>>** 제 사정은 약간 다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영국이 더 친숙해요. 그쪽이 유학하기도 쉽고 친구들도 많이 선택했지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권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보다는 한국의 KAIST를 지원했어요.

**아이자즈>>** 나비하의 사정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와 한국을 두고 어디로 갈지 고민했어요. 사실 캐나다가 더 가능성이 높긴 했죠. 언니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재정 문제도 있고 언니와 저 모두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학위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장학금이라는 큰 장점이 있는 KAIST를 선택했어요.





**국제 학생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언어 아닐까 합니다. 언어에 따른 소통 문제는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시라코셋>>**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과하는 문법 같은 것은 신경쓰지 않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소통하곤 합니다. 저는 언어는 소통의 도구라는 생각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소통할 수 있으면 만족하는 편이라서 외국어에 꼭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제가 첫 국제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무척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랩 미팅 때 저를 옆 자리에 앉히고 한국어로 오가는 이야기를 직접 통역해주시곤 했지요. 그러

시면서도 중간중간 쉬운 부분은 굳이 통역하지 않을 테니 직접 듣고 이해하면서 익숙해져보라고 격려하셨어요. 덕분에 조금씩 랩미팅이 익숙해지더니 금세 연구실 사람들과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유창하고 매끄럽지는 않더라도 서로 생각을 나누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호사인>>** 제가 아직은 학부생이라서 연구실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두려고 랩미팅에 참석하곤 했는데, 처음엔 무척 고생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랩 미팅이다 보니 어려운 한국어 전문용어나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어에 서투른 저로서는 정말 알아듣기가 어려웠죠. 다행히 교수님과 연구실 분들이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주셨어요.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영어로 질문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미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연구실 사람들이 가급적 영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지요. 저 역시 강의나 발표에 참석하기 전에는 미리 자료를 확인해서 숙지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리우>>** 그런데 한국인 학생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로부터 알 수 있듯 대부분의 국제학생에게도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거든요. 한국인 학생들이나 국제학생이나 언어에 관해서는 비슷한 상황이니 괜히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자신있게 소통하면 좋겠어요.

**언어적인 문제가 결국은 연구실 생활**

**이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오셨을텐데요, 국제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호사인>>** 외국인학생협의회(KISA) 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2019년에 KISA 차원에서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음식축제'를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전통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즐기는 행사였어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국어 포스터도 만들긴 했지만 당시 저는 국제학생끼리 모이는 행사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행사를 시작하니 한국인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서 놀랐어요. 한국인 학생들은 음식에 대해 묻기도 하고 현장에서 서로 친해져서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국제학생들과 함께 행사를 즐겼죠. 아마 그날이 한국 학생들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날이었을 거예요. 음식축제 이후 이런 행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는대로 국제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많아지고 일상화되면 소통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라코셋>>** 제가 자원봉사하고 있는 키하우스(KI-House)에서도 KISA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국제학생 문화카페라는 취지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제학생에게 한국의 문화를 친숙하게 전달하는 행사들

을 여럿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유명해진 달고나 뽑기를 했어요. 이런 행사들은 국제학생이 대상이지만 한국 학생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문화행사가 활성화되면 국제학생과 한국인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호사인>>** 국제학생과 한국인 학생을 1대 1로 연결하는 버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서로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계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짝을 이룬 사람들이 캠퍼스를 이곳저곳 탐방하기도 하고 대전 투어도 하면서 서로 깊이있게 이야기하지요. 버디 프로그램 이후에는 서로 친해져서 따로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라코셋>>** 저도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한국인 친구와 맛집도 돌아다니고 이런저런 놀거리를 찾아가기도 하고, 제 삶에서 손꼽힐 만큼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일단 학업에 대한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서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고단한 연구생활에 단비 같은 휴식이 되기도 해요.

**학내 분위기나 연구실에서 언어 말고도 '문화에 따른 차이'를 느낀 적도 있었나요?**

**리우>>** 가장 큰 차이는 선후배와 같은 독특한 한국식 인간관계가 생소했어요. 한국에서는 후배가 선배를 만나면 간단하게라도 격식을 갖추어 인사하곤 하잖아요? 제가 살던 곳에는 이러한 선후배간 격식이 딱히 없거든요. 그



래서 저는 과 후배님들을 만나도 그저 'Hi!'라며 가볍게 인사하는데 후배님들은 '안녕하세요!'라며 깎듯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이상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각자 자신이 익숙한 방식대로 서로 존중해주는 모습이라 좋았어요.

**제임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대학을 대하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학부를 나온 MIT에서는 학부생이 MIT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학교 밖에서 다양한 문화와 생활방식을 접해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칭화대로 간 학우도 있고, 옥스포드나 프랑스로 간 친구도 있었죠. 이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최대한 먼 곳에서 학생들을 데려오려고 애씁니다.

**시라코셋>>** 그런 분위기를 저도 느낀 적이 있어요. 한국에 온 이후에 개인적인 계약을 진행하면서 제가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반응이 '아니 왜?'였습니 다. 이미 KAIST라는 좋은 학교에 있는데 굳이 왜 다른 학교로 옮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였어요. 확실히 한국에서는 '한 우물을 파는' 분위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전공이나 상황이 다른 만큼 KAIST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도 다를 듯합니다. KAIST에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이자즈>>** 저는 아직 학부 전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이라 전공에 명확한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KAIST에 있는 동안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보고 싶어요. 더불어 한국어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호사인>>** 저도 마이다처럼 앞으로 무엇을 할 지는 아직 고민이에요. 그래도 이미 3학년까지 배웠고 진로도 안정적인 분야이기에 제 진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는 코로나19 때문에 KAIST에 있는 동안 사교생활을 못 했는데, 학부 졸업할 때까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4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KAIST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었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그런 성격을 극복하고 외국인인든 한국인인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싶습니다.

**시라코샷>>** 처음 KAIST에 올 때는 전공으로 선택한 신소재공학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성공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좋은 학점을 받고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었지요. 그런데 4년 지나고 보니 조금 다른 목표도 생겼습니다.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 내가 지금 생활하는 곳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저에게는 학업만큼이나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

워야 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리우>>** 저는 대학원에 있어서인지 전공 분야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내고 싶어요. 석사 이후에 한국에서 일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더 머무르면서 스타트업도 알아보고 문화도 더 경험하고 싶어요. 저에게 현대의 한국은 마치 아시아와 북미,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항구처럼 느껴지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아시아의 문화가 있으면서도 여러 문화와 굽직한 영향을 주고받는 국제화된 곳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고 싶어요.

**필립스>>** 흔히 대학은 연구능력과 같은 '하드 스킬'을 키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인관계나 상호 이해, 소통과 같은 '소프트 스킬'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것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하드 스킬'은 좋은 삶든 석사과정 2년 동안 연구실에서 제대로 배우니까요. 이보다 중요한 것이 온전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것 아닐까요?

한 시간 동안 이어진 대담에서 국제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언어를 손꼽았다.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유학할 때 으레 겪는 어려움이다. 그러나 국제학생들은 모두 언어는 소통의 도구임을, 소통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담에서 국제학생들이 나누는 경험은 국제학생도, 이들과 함께 하는 교수와 한국인 학생들도 서로 가까이 다가서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연 소통의 물꼬가 글로벌 캠퍼스를 지향하는 KAIST의 제도 개선과 만나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국적이나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포용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KAIST의 위상과 가치에 부합하는 글로벌 다양성을 더욱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KAISTian



**+ 뉴런 교체에 의한 기억 저장 규명**

KAIST 생명과학과 한진희 교수 연구팀이 살아있는 생쥐 뇌에서 기억저장 뉴런을 표지하고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 같은 경험을 다시 할 때 원래 존재하던 오래된 기억 뉴런이 새로운 뉴런으로 교체됨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같은 기억은 같은 뉴런에 계속 저장됨으로써 경험이 누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넘어선다는 중요한 학문적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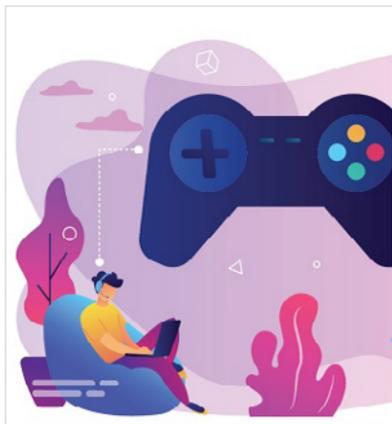
>> 더보기



**+ 기존 대비 10배 이상 빠른 마그논 전송현상 발견**

KAIST 물리학과 이경진, 김세권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이동규 대학원생, 싱가포르국립대 양현수 교수, 이규섭 박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반강자성체에서 초고속 마그논 전송을 실험적으로 관측하고 그 원리를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반강자성 마그논을 이용한 정보처리 소자의 고속화 가능성을 열어 스핀트로닉스 분야 응용과 기초과학 모두에서 향후 관련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 내러티브 게임에서 플레이어와 캐릭터 관계 연구결과 발표**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도영임 초빙교수가 내러티브 게임에서 플레이어-캐릭터 간의 관계와 C34 게임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게임을 플레이했던 12명의 플레이어를 심층 인터뷰해, 이 게임의 호불호가 갈렸던 이유를 플레이어-캐릭터 간의 관계에서 밝혀냈다. 인터뷰에는 한국, 스위스, 미국, 필리핀, 에콰도르 등 다양한 국적의 플레이어가 참가했다.

>> 더보기



**+ 전해액 첨가제로 리튬금속전지 수명 높인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최남순 교수 연구팀이 리튬금속전지의 장수명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해액 첨가제 기술을 개발했다. 개발된 첨가제 조합 기술은 리튬금속 음극 표면에 바람직한 이중층 고체전해질 계면 박막을 형성해 리튬 덴드라이트 형성을 억제하고 리튬이온을 균일하게 전달해 리튬금속전지의 수명과 고속 충·방전 특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 더보기

PEOPLE



**+ 전산학부 동문 박준하 토스뱅크 CTO 1억 기부**

KAIST 산학부(학사 99) 동문인 박준하 토스뱅크 CTO가 전산학부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NHN, 열두시, 플레이독소프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의 개발자를 거쳐 2021년부터 토스뱅크에 재직 중인 박준하 동문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 더보기



**+ 학생 창업기업 엘리스, 발전기금 3억 원 약정**

KAIST 전산학부 학생 창업기업 엘리스(대표 김재원)가 모교에 발전기금 3억 원을 약정했다. 엘리스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엘리스의 첫 번째 사회공헌 활동으로 여섯 번째 창립기념일인 11일에 약정식이 함께 열려 더욱 뜻깊은 날을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기부금은 전산학부 건물 증축 등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더보기



**+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 아이뉴스24 소셜DNA 혁신상 포용상 수상**

KAIST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엔젤로보틱스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개최한 '제2회 아이뉴스24 소셜DNA 혁신상' 시상식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인 '포용상'을 수상했다. '소셜DNA 혁신상'은 아이뉴스24가 창간 20주년을 맞은 지난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제정한 상이다.

>> 더보기



**+ 화학과 임미희 교수, 2021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수상**

KAIST 화학과 임미희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여하는 '2021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학술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1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은 임미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학술), 김민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산업), 문애리 덕성여대 약학대 교수(진흥)에 돌아갔다. 시상식은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2021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에서 이뤄졌다.

>> 더보기

CAMPUS



**+ 제조시 메타버스 팩토리 체험관 개소**

KAIST가 "제조시 메타버스 팩토리 체험관(이하, 체험관)"을 1일 개소했다. 제조 특화 인공지능(AI)을 메타버스 세계에서 구현한 가상공장으로 실제 현장에서 수집된 제조데이터에 시기술을 결합해 분석·활용하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관은 KAIST K-Industry4.0추진본부와 제조시빅데이터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 더보기



**+ 홍승범 교수의 코세라 (Coursera) 온라인 강의, 세계적으로 4만여 명 수강해 큰 인기**

KAIST 신소재공학과 학과장 홍승범 교수가 코세라에 개설한 '전자기학 특강' 과목의 누적 수강인원이 4만여 명을 달성했다. 코세라(Coursera)는 미국 스탠퍼드 컴퓨터과학과 앤드류 응 교수와 대프니 콜러가 창업한 온라인 교육기관이다. 2012년 운영을 시작해 2020년 현재 전 세계에서 7천 7백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 더보기



**+ KAIST-화성사이언스HUB 유치 조성 MOU 체결**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1월 11일 오전 KAIST, 지역국회의원, 롯데백화점 동탄점과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KAIST-화성 사이언스 HUB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성시와 KAIST는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제공한 공공부지를 반도체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 더보기



**+ KAIST, 대학 최초 전문연구요원 인성-리더십 교육과정 개설**

KAIST와 육군교육사령부가 전문연구요원을 대상으로 '인성-리더십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전문연구요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성-리더십 교육과정'은 우리 군의 우수한 교육 역량과 인적 자원을 KAIST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됐다. KAIST와 육군교육사령부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총 7개월의 준비를 거쳐 9월 30일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다.

>> 더보기